

월요광장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

은유로서의 ‘페스트’, 저항하는 인간의 연대기

스트는 중세 유럽의 인구를 거의 절반으로 줄여준 흑사병의 전염병이다. 그런데 카뮈가 말하는 ‘페스트’는 은유로서 이해할 때 그 의미가 완성된다. 카뮈에게 페스트는 인간의 자유지를 말살하고 반인간적 수단을 동원했던 나치의 전체주의와 그 동조 세력이었다.

카뮈는 페스트를 통해서 전쟁이라는 부조리와 함께 삶을 파괴하는 모든 악과 부정(否定)을 은유하며 이에 저항하는 인간을 역설한다. 이런 의미에서 페스트는 모든 비인간적 굴종과 억압, 인간성의 파괴, 진실의 조직적 왜곡, 반역사적 불의의 확산(가짜 뉴스) 등에 대한 상징이다. 그래서 이 페스트 상황은 실상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 상황의 은유다. 여기에서 실존하는 유일한 주체는 개인이며 자기 존엄을 지키려는 자유의지는 굴종의 부조리에 대한 저항이다.

작품 속 오랑이라는 도시는 견장을 수 없게 퍼지는 페스트로 인해서 완전히 봉쇄된다. 사람들은 대문밖에 빠져서 저마다 빠져나갈 길을 고민한다. 도시의 봉쇄는 곧 자신들이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적 삶의 봉쇄이기 때문이다. 삶에는 자물쇠가 채워지고 죽음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지르는 실수는 자신들의 감정에 감금되는 것이다. 감정의 수인이 되어서 서로의 연결은 바닥까지 무너지고 분노와 허탈, 배신감 등이 지배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이렇게 해서 페스트라는 폭력은 우리에게 무기력과 허무주의의 굴종을 가장 거칠고 비열한 방식으로 요구하고 지배한다.

카뮈는 나치의 야만적인 전쟁을 페스트로 은유하였고, 그 전쟁의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있으며, 이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보았다. 다시 말하면 페스트를 퍼뜨리는 사람 또한 우리라는 것이다. 그래서 ‘페스트와 싸운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그 오랜 세월 동안 내가 끊임없이 페스트를 앓고 있었다’고 말하는 또 다른 주인공 타루는 바로 불완전하고 불안한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 우리는 실상 페스트 환자이면서 페스트와의 투쟁하는 모순된 존재라는 의미다.

하지만 이 모순의 자각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노력하는 인간성의 가치가 드러난다. 공포와 불의가 절정에 달한 폐쇄된 도시에서 이사인 주인공 리유는 그저 ‘인간’ 이고자 하는 타루와 페스트 환자를 돌볼 뿐 어떤 거창한 이념의 이름표도 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지르는 실수는 자신들의 감정에 감금되는 것이다. 감정의 수인이 되어서 서로의 연결은 바닥까지 무너지고 분노와 허탈, 배신감 등이 지배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이렇게 해서 페스트라는 폭력은 우리에게 무기력과 허무주의의 굴종을 가장 거칠고 비열한 방식으로 요구하고 지배한다.

카뮈는 나치의 야만적인 전쟁을 페스트로 은유하였고, 그 전쟁의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있으며, 이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보았다. 다시 말하면 페스트를 퍼뜨리는 사람 또한 우리라는 것이다. 그래서 ‘페스트와 싸운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그 오랜 세월 동안 내가 끊임없이 페스트를 앓고 있었다’고 말하는 또 다른 주인공 타루는 바로 불완전하고 불안한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 우리는 실상 페스트 환자이면서 페스트와의 투쟁하는 모순된 존재라는 의미다.

하지만 이 모순의 자각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노력하는 인간성의 가치가 드러난다. 공포와 불의가 절정에 달한 폐쇄된 도시에서 이사인 주인공 리유는 그저 ‘인간’ 이고자 하는 타루와 페스트 환자를 돌볼 뿐 어떤 거창한 이념의 이름표도 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지르는 실수는 자신들의 감정에 감금되는 것이다. 감정의 수인이 되어서 서로의 연결은 바닥까지 무너지고 분노와 허탈, 배신감 등이 지배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이렇게 해서 페스트라는 폭력은 우리에게 무기력과 허무주의의 굴종을 가장 거칠고 비열한 방식으로 요구하고 지배한다.

꿈꾸는 2040

‘주민을 위한, 주민의’ 주민자치회 설립을 위한 제언



정달성
위민연구원 이사·생활정치발전소 소장

하는 최소 단위이자,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작은 민주주의 학교다. 이런 종합적인 마을 자치, 마을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추진체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 추진체가 바로 주민자치회인 것이다.

따라서 주민 주권 시대에 걸맞은 주민자치회는 시대적 흐름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민을 위한, 주민의 ‘주민자치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

첫 과제는 마을의 다양한 세력들을 어떻게 묶고 융화시킬 것인가이다. 새마을운동 시절(70-80년대)을 거치고 주민자치위원회 시절(90년대 후반-2000년대)을 지나 마을 공동체 활성화 시기(2010년~현재)를 맞으며 이제 주민자치회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마을은, 마을 안의 공동체 구성원 간의 시대에 따른 가치와 방법들의 다름으로 각양각색의 마을단체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공통점은 살리고 차이점은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행정동 단위의 협의체 구성과 운영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다.

두 번째 과제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이다.

행정동 단위 전체 주민을 위한, 전체 주민의 자치 조직으로서 대표성과 민주성, 개방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와 관련된 마을 추진체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 추진체가 바로 주민자치회인 것이다.

또한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하는 과정과 운영에서 주민 누구도 배제됨이 없이 참여를 제안·모집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된 자제로 주민 총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책임 있게 실행하고 상시적으로 추가 의견을 모으는 추진체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보람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지속가능성, 활동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이다. 우선 분과위원회 활성화다. 관심사가 분명한 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해 효능감을 높이는 것이다. 위원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마을의 주체로서, 분과에서 충분히 토론되고 결정된 뒤 사업들을 실행하면 책임성과 적

극성이 발휘될 확률이 높다. 추진 과정과 결과에 대한 만족감과 효능감 또한 크기에 선순환의 기본 구조를 갖추며 주민 자치력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된다.

현재는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마을, 또는 주민자치회 추진 활성화 사업, 협치 마을 사업, 미래비전추진단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려는 마을들이 혼재되어 다양한 시행착오들을 겪으며 주민 자치, 마을 공동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필자가 속한 마을에서도 주민들과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과정을 통해 나름의 신뢰를 쌓아 가며 주민 자치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좌충우돌이다.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민과 함께 주민자치회는 대표성, 민주성, 개방성 등을 보장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누군가는 먼저 갔던 길이기도 할 텐데 우리 마을에 적용시켜보니 또 새로운 길이다. 에돌아 갈 수 없으니 정면으로 뚜벅뚜벅 함께 갔으면 한다. 주민자치회의 소중한 가치와 주민들의 주민 되고자 하는 근본 마음을 믿으며.

2040 광주 도시계획 이렇게

인구 정체기의 도시, 질적 성장 주력해야



이세규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대한국도·도시계획학회 회원

도시 공간과 정책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광주를 둘러싼 계획환경의 관성은 여전히 이 같은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한 채 기존의 양적 성장과 개발의 추세가 여전히 남아 있어 우려스럽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전개될 인구 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이 절실하다. 가장 변화가 시급한 것은 도시와 관련된 법과 제도의 개선이다. 공간 계획의 최상위 법률부터 ‘양적 개발’의 개념을 인구 감소에 대처할 수 있는 ‘질적 성장’의 개념으로 쇠신해야 한다. 그런데 인구 감소에 맞추기 위해 기존의 도시 용지를 축소해야 하는데, 이 또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중앙 정부의 하향식 개발로 도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 같은 개발 방식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시기에는 적절했으나, 인구 감소기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지적된다. 앞으로는 개발 중심보다 ‘여유’와 ‘공생’이 도시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모토(motto)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지역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관리형 도시 계획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방 분권이 우선 보장돼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는 지방 분권과 관리형 도시계획을 정착 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방 정부는 도시기본계획에 ‘압축 도시’와 ‘스마트 도시’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많은 신시가지가 교외 지역에 집중적으로 조성됐다. 이 같은 외연 확산은 도시 관리와 운영 차원에서 앞으로 도시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될 것이다. 압축 도시는 도시의 토지 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원도심의 활력을 유도한다. 그리고 스마트 도시는 도시 경영과 인력 관리 차원의 비용 절감을 효율적이기 때문에 필요한 계획 요소이다.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은 이미 압축 도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홋카이도 에비와시는 기존 인구 성장형 도시계획의 관행을 버리고 인구 축소에 적합한 개발 전략을 도시기본계획에 담아냈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인 철도역을 중심으로 도시의 공간 구조를 압축적으로 재편성했고, 보행권의 배리어 프리(무장애)와 대중교통의 네트워크를 확장하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역 생활권으로 재정비했다.

또 지방 정부는 효과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 입지 적정화 계획을 함께 수립해야 한다. 전반적인 도시의 기능과 위치를 재배치하고, 공공시설과 대중교통 강화를 통해 시가지의 활성화를 유도하면서 국유 재산의 활용 방안을 마련해 다양한 시책과 연계해야 한다. 지방 정부는 입지 적정화 계획을 통해 시책들의 정합성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끝으로 인구 감소기에는 ‘작지만 행복’한 도시’를 위한 ‘연성적이고 섬세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도시 계획이 물리적 개발 중심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도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저출산과 고령화를 먼저 겪고 있는 일본이 ‘연성적’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비전과 목표 로 바꾸고 있다. 교토시가 인구 절벽으로 인한 새로운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의 비전을 문화 도시와 건강 도시에 초점을 맞추어 수정한 사례도 눈여겨볼 만하다.

광주시도 인구 정체를 넘어 인구 절벽의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우리의 도시계획도 양적 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시민의 삶을 위한 질적 관리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社說

민노총은 ‘광주형 일자리’ 발목 잡지 말라

오랜만에 듣는 반가운 소식이라 귀가 번쩍 뜨인다. 한국노총 광주본부의 엇그제 기자회견 얘기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광주형 일자리를 비판해 온 전국민노총동조합총연맹(민노총)을 겨냥,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노동계 일각의 그릇된 목소리가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대차 노조가 주축인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광주형 일자리 협상 과정부터 비판을 이어온 민노총에 대한 비판이다.

민노총은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에서 임단협을 일정 기간 유예하기로 한 점 등에 주목해 임금을 포함한 노동 조건 결정에 노동자가 참여할 수 없다며 노동 기본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또한 광주형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며 임금의 ‘하향 평준화’를 낳을 수 있다며 지난달 21일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형 일자리가 노동 기본권을 ‘희생양’으로 삼은 ‘야합’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코로나에 이른 폭염까지 철저히 대비해야

광주·전남 일부 지역에 올 들어 첫 폭염 특보가 내려지면서 때 이른 무더위가 시작됐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올 여름 무더위는 예년에 비해 더욱 극심해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더욱 극심해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더욱 극심해질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지난 4·5일 순천·광양·구례·곡성 등 전남 4개 시·군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를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한다. 4일 낮 최고 기온은 순천 33.6도, 구례 33.4도 곡성 33.2도, 광주는 32.1도까지 치솟았다.

기상청은 또한 올 여름 광주·전남 지역 기온이 지난해보다 0.5도~1.5도 정도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폭염 예상 일수는 광주가 20~25일로 지난해에 비해 배

이에 대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노총의 비판을 ‘반(反)노동적인 기득권 지키기’로 규정하고 “부끄러운 줄 알라”고 비판했다. 또한 “광주형 일자리 때리기는 노조의 생명과도 같은 연대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자 착취 구조를 고착화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대기업 노조가 노사 간 협업을 통해 우리를 때도 없고 광주형 일자리를 왜곡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한국노총의 이러한 주장에 한마디도 더 보태거나 뿔 말미 없었고 본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포화 상태 등을 말하지만 억지로 지어낸 공색한 논리이며 산업이 포화상태인데 대기업 노조는 왜 사업주에게 투자를 더하라 하는 것인가” 하고 묻는 한국노총의 반문에 깊이 공감한다. 민노총과 대기업 노조는 앞으로 더 이상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발목을 잡아서서는 안 될 것이다.

이상 증가하고, 전남은 12·17일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열대야도 17~22일로 평년에 비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코로나 확산과 함께 폭염까지 ‘이중 재난’이 예고되면서 지자체들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광주시는 무더위 쉼터와 그늘막 운영, 재난 취약계층 서비스 등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지만 코로나 확산 위험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당장 독거노인 등을 위한 무더위 쉼터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1452곳이 지정돼 있지만 코로나 발생 이후 잠정 폐쇄돼 이용할 수 없다. 그늘진 실외에 대체 쉼터를 운영하는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코로나와 폭염 피해를 함께 극복하려면 예년과는 다른 치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도 무더위가 심해지면 마스크 착용조차 힘들어지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無等鼓

2019년 오스카상 작품상·각본상에 빛나는 ‘그린북’은 흑인과 백인 두 남자의 특별한 우정을 그린 영화다. 아프리카계 미국인(흑인) 피아니스트 셸리는 음악적 재능과 교양을 갖춘 천재 뮤지션으로 이미 성공해 부와 명성을 얻은 인물이다. 셸리는 1962년 미국 남부 순회공연을 가게 되는데, 허풍이 심하고 다혈질인 성격의 백인 토니를 보다가도 겸 운전자로 채용하게 된다.

영화 제목인 ‘그린북’은 흑인이 갈 수 있는 숙소·음식점 등을 기록한 책자를 뜻한다. 셸리는 출발 전 토니에게 유색인종을 위한 여행안

로드가 경찰의 무릎에 8분 46초간 목이 눌린 채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하던 영상이 인터넷을 타고 급속히 퍼져나갔다. 이후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자본주의 한복판인 뉴욕을 기점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분노의 분길로 치솟고 있다.

미국은 1865년 남북전쟁 종결로 노예제가 폐지됐지만 이후로도 흑백 분리주의가 100년간 지속됐다. “평등하지만 분리된다”는 원칙이 뿌리 깊게 박힌 탓이다. 미국 심리학자 고든 올포트는 저서 ‘편견’에서 “잘못된 일반화에 근거해 어떤 집단과 그 구성원에 대해 지니는 적대적 태도와 감정”을 편견으로 정의한다. 그러면서 편견의 세 형태인 적대적인 말, 차별적 행위, 물리적 공격은 타인의 존엄을 부인하고 공동체의 평화를 무너뜨린다고 경고한다.

편견 또한 습득되고 확산된다. 영화 ‘그린북’에서처럼 우리 사회에도 분리와 혐오라는 편견이 작동하고 있다. 8분 46초는 단지 물리적인 시간만이 아니다. “숨을 쉴 수 없다”던 어느 흑인의 절규이면서 죽음으로 편견에 맞선 교통의 시간이었다. /박성진 문화부 부장 skypark@

‘8분 46초’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기사주목)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